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경영위기 농가에 13억 원 지원

입력: 2025.07.02 15:06 / 수정: 2025.07.02 15:06



경영회생지원사업 안내도 /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더팩트 | 공주=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2025년 농지은행사업비 110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투입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공주지역 농가를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금융·공공기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는 최장 10년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임대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농지 매도를 통해 부채의 80% 이상 상환 가능한 농업인이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으로 공주시 기준 m²당 10만 원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이 있는 농지는 내용연수와 건축물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해 함께 매입한다. 환매 시에는 감정가와 정책요율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어 농가 부담도 줄었다.

박재근 지사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tfcc2024@tf.co.kr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경영 위기농가 한시 지원

✎ 이건용 기자 | ① 승인 2025.07.02 15:10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도.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2025년 농지은행사업비 110억 원 중 13억 원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배정하고 공주시역 농업경영체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면서 부채를 대신 갚고 농지 등은 최장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중 농지 등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주요 지원조건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농지 등 매도를 통한 부채 80% 이상 상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농지 매입은 전, 답, 과수원을 감정평가해 제곱미터 당 10만 원(공주시 기준) 이내인 경우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과 같은 농업용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내용연수 및 건축물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와 함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 농지 등을 농업인이 환매해 갈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정책요율(고정 3% 또는 변동)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데,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매도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041-850-6448, 1577-7770)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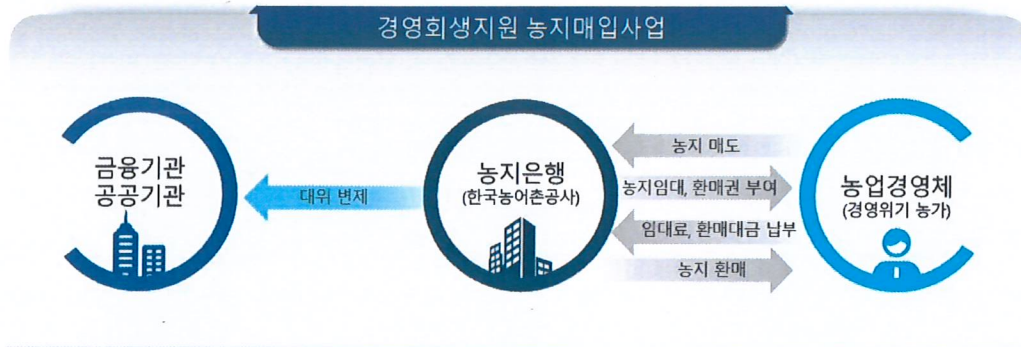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일시적 경영위기농가 지원

✎ 김태영 기자 | © 승인 2025.07.02 13:55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3억원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안내도. 공주시사 제공.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2025년 농지은행사업비 110억원 중 13억원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배정하고 공주지역 농업경영체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면서 부채를 대신 갚고 농지 등은 최장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중 농지 등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주요 지원조건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재해피해율 50%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이상, 농지 등 매도를 통한 부채 80%이상 상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농지 매입은 전, 답, 과수원을 감정평가해 m²당 10만원(공주시 기준) 이내인 경우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와 같은 농업용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내용연수 및 건축물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와 함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 농지 등을 농업인이 환매해 갈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정책요율(고정 3% 또는 변동)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은 매도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박재근 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 041-850-6448, 1577-7770)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taeyoung3000@ccdn.co.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대상의 지원 나서

✎ 김상훈 기자 2025.07.02 11:28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3억 원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QR코드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농지은행사업비는 총 110억 원으로 이중 13억 원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하나로 배정한다. 대상에는 공주지역의 농업경영체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에 지원이 적극 추진된다.

이 시행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주제아래 자연재해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가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농지 등은 최장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통해 임대 기간 중 농지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주요 지원사업 조건에는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농지 등 매도를 통한 부채 80% 이상 상환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L 농지에 대해 설정된다.

또한 농지 매입은 전, 답, 과수원을 감정평가해 제곱미터당 10만 원(공주시 기준) 이내인 경우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업용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는 내용연수 및 건축물등기 여부를 확인 후 농지와 함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된다.

여기에 농지 등을 농업인이 환매해 갈 경우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요율(고정 3% 또는 변동)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해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비례해 매도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박재근 공주시장은 "이번 시행에 따라 경영회생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041-850-6448) 또는 1577-7770, QR코드 등을 통해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일시적 경영위기농가 지원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5.07.02 13:33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3억원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2025년 농지은행사업비 110억 원 중 13억 원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배정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주요 지원조건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농지 등 매도를 통한 부채 80% 이상 상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농지 매입은 전, 답, 과수원을 감정평가하여 제곱미터당 10만 원(공주시 기준) 이내인 경우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과 같은 농업용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내용연수 및 건축물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와 함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특히 농지 등 농업인이 환매해 갈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정책요율(고정 3% 또는 변동)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데,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매도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041-850-6448, 1577-7770)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근 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